

# 비혈연 골수 기증과 이식

기증자 / 육군 북진선봉부대 대위 이 동 철

## 11월에 만난 '또 하나의 나'



나는 지금 육군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부대에서 포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교육훈련·검열 등 부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병사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뛰고 같이 행동하면서 군생활의 보람과 기쁨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며칠 전 한국골수은행협회 관계자로부터 지난날 나의 골수를 기증 받은 수혜자가 건강을 회복,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한 통의 전화 때문이다.

백혈병 환자가 골수 기증을 받더라도 2~3년 정도가 지나야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 보장된다는 말을 기증 전 담당 의사에게 들었는데 그 수혜자가 벌써 건강을 회복해 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건강한 신체조건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

으로 골수 기증을 결심했다. 그러던 중 나와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정밀검사와 수혈을 거쳐 골수기증을 했다.

골수기증(채취)은 준비과정에 비해 3일간의 입원으로 쉽게 끝났다. 입원기간 중 내가 한 일이라고는 수술대 위에서 1시간 가량 마취상태로 있었다는 것 뿐... 이런 작은 실천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

혹시 후유증 때문에 골수기증을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새 삶을 갈망하는 백혈병 환자들이 유전자형이 맞는 기증자를 찾지 못해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작은 관심과 희생으로 그 죽어가는 생명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말이다.

병사들 앞에서 임버릇처럼 말하는 ‘나보다 더 큰 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주변을 살피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아직도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11월에 만난 수혜자가 더욱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